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8.23.(수) 조간부터</b>	<b>배포</b>	2017.8.22.(화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광 (02-2100-2950) 보험과장 손주형 (02-2100-2960) 중소기업과장 신진창 (02-2100-2990) 자본시장과장 박민우 (02-2100-2650) 자산운용과장 김기한 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박진애 사무관 (02-2100-2953) 신상록 사무관 (02-2100-2961) 양병권 사무관 (02-2100-2992) 양재훈 사무관 (02-2100-2993) 송병관 사무관 (02-2100-2652) 남명호 사무관 (02-2100-2673)	

## 제 목 : 「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」 개최

- ◆ 금융당국, 연구원, 업계 등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「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」을 논의할 계획
- ◆ 오늘(8.22일) 개최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kick-off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TF를 운영하면서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

## 1. 회의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'17.8.22.(화) 10: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「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」 1차 회의를 개최

### < 「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」 개요 >

- 일시 및 장소 : '17.8.22.(화) 10:00,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
- 참석자
  - (금융위) 부위원장(주재), 상임위원, 서비스국장, 자문관, 은행과장 등
  - (금감원) 부원장보, 감독총괄국장, 인허가 담당 국장 등
  - (연구원)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
  - (업계) 은행연합회, 금투협회, 생·손보협회, 여신협회,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 부기관장

## 2. 주요 내용

### <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배경 >

- 금융위 부위원장은 먼저,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음

#### 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

- 지난 7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“국정운영 5개년 계획”을 발표하면서, ‘국민의 나라, 정의로운 대한민국’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‘100대 국정과제’를 제시하였음

- 이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‘더불어 잘 사는 경제’ 실현을 위한 “금융산업 구조 선진화”임

- 특히,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며,

- 금년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

-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,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

- 다만,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,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

-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

⇒ 따라서, **혁신적인 시장 참가자**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**경쟁을 유도**하고, 이를 통해 **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**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
- 최근 신규 설립된 **인터넷전문은행**이 제공하고 있는 **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**\*와 그에 따른 **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**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음

\* 차별화된 서비스 (24시간 이용 가능,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, 계좌 기반 간편결제 등), 가격 경쟁(외환송금 수수료 인하, 중금리 대출 등)

## ② 생산적 금융의 일환 : ‘모험’을 촉진하는 ‘혁신 금융’

□ 최근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의 본연의 역할인 **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**되도록 하는 “**생산적 금융**”의 정책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**다양한 정책 방안**을 추진중임

-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**정책 취지**를 잘 **구현**할 수 있는 **가능성 있는 참가자**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

□ **덴마크**에서는 **국민의 절반**이 **모바일 페이**를 이용함에 따라, **상점에서 거래**를 할 때뿐만 아니라 **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**에도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**모바일 페이**를 이용하는 등 ‘**현금 없는 사회**’로의 움직임이 **가속화**되고 있다고 함

- 이처럼 **사회 모습**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**신규 플레이어**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**새로운 기술,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**에 대한 **적극적인 자금 지원** 역할을 수행한다면,
- 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**사회 변화 선도**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,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**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**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

## <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 >

□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, 향후 추진할 **진입규제 개편의 추진 방향**에 대해 제시하였음

### ①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 검토

□ 먼저, 신규 진입 정책을 산업 현황에 대한 **체계적 분석**을 토대로, **적극적**이고 **일관성**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□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**업권별**로, 금융당국의 **재량적 판단**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

-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,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**보수적인 태도**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

- 또한,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, ‘**적절한 시점**’에 ‘**적정한 규모**’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

⇒ 따라서, **각계 전문가**를 중심으로 **주기적**으로 **업권별 경쟁도**를 점검하고, **신규 진입**이 필요한 경우 이를 **허용**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

### ② 인가 업무 단위 개편

□ **인가 업무 단위 개편**도 함께 추진할 필요

-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,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**업권별 편차**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**진입 장벽의 높이**도 다른 상황

⇒ 따라서, **업무의 특성** 등을 감안하여 **진입 장벽의 높이**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, **규제 차익**을 해소할 수 있도록 **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**할 필요가 있음

### ③ 인가 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·투명성 제고

- ☐ 아울러,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**인가 요건**에 대해서는 **통일성** 있게 정비하고,
- ☐ 인가 과정에서 **적용되는 기준**은 최대한 **명확화·구체화**할 필요

### ④ 인가 절차의 투명성·신속성 제고

- ☐ **인가 절차**는 금융회사가 직접 체감하는 프로세스로, 이를 개선하는 것은 **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**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
- ⇒ 따라서, 인가의 **모든 과정**을 **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**함으로써 **금융회사의 편의성**을 제고하는 동시에 **알 권리**를 보장하고,
  - 인가 절차의 **신속성**을 제고하여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**소요 기간** 및 **절차**를 **단축**할 필요가 있음

## 3. 향후 일정

- ☐ 10월까지 **격주 단위로 TF**를 개최하여 세부 방안 마련
- ☐ 올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